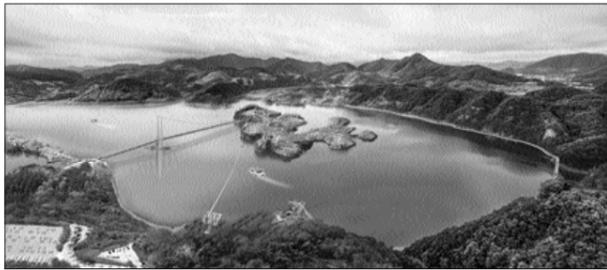


옥정호, 천만 관광지 도약 시동

임실군, 2021~2025년까지 250억원 투입해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추진

임실군이 '전북의 보물'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민선 6기부터 추진한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과 연계하여 옥정호수변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임실 옥정호.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옥정호의 수변 및 주변 지형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지 개발과 산악레포츠 체험 기반시설 조성 등이 핵심이다.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50억원을 투입해, 산악레포츠 체험시설과 수변 관광기반시설 등 노후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진흥 도모를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수변 관광기반시설로는 곡선형 쉼터와 에코라이더, 알파인코스터, 커뮤니티센터, 휴게공간, 요산공원 리모델링 등에 135억원을 투입, 자연친화형 체험공간을 조성한다.

산악레포츠 체험시설로는 115억원 투입하여 테마공원과 캠핑장, 수변데크, 국내 최대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등을 만들어 수변과 생태, 산림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민선 6기가 시작된 2015년부터 올해까지 280억원을 투입, 대형 프로

젝트인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관이 빼어난 운암면 옥정호 일원에 환경교육과 관광기반 설치를 통해 자연을 체험하는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에코누리캠퍼스와 봉어섬 에코가든, 에코투어링 루트, 감성투어로드를 조성하고 생태탐방선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옥정호 주변을 도보로 여행하는 물 문화 둘레길 7.3km도 내년까지 조성한다.

특히 옥정호의 자랑거리인 봉어섬 에코가든사업 추진을 위해 봉어섬 부지 6만16000㎡를 매입해 방문자센터건립, 소나무, 구절초, 송엽국, 철쭉, 수

울해까지 280억원을 투입, 대형 프로

해 2021년에는 산림욕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추진으로 50년 넘게 소외받고 힘들었던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가치의 관광로드가 만들어져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천만 관광객을 유입하는 핵심관광 거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심민 군수는 "옥정호는 임실을 넘어서 전라북도의 보물"이라며 "호남권의 유일한 체험 및 체류형 관광지로서 전주 한옥마을 천만 관광객을 이끌 제2의 천만 관광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343명 모집해 7월 1일부터 추진

남원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 343명을 대거 모집해 오는 7월 1일부터 추진한다.

일지리는 희망일자리사업 88개 168명,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36개 122명, 청년인턴 11개 사업장에 13명, 지역공동체일자리 4개 사업장에 12명, 코로나19 비정규직실직자 단기일자리 28명 등을 모집, 대상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희망일자리사업은 긴급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19억 8천만원 등 총사업비 22억원 규모로, 공공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학생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당초 계획인원 50명에서 72명을 122명으로 늘렸으며, 학생들은 시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에 배치되어 자료정리와 사무보조, 현장업무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13명은 예비취업 준비생과 미취업 취약계층 청년들로 6개월간 공공기관에서 인턴업무를 수행하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12명은 지리산허브밸리, 서도역 등에서 공동체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남원시는 그밖에도 지역 내 맞춤형 창업지원을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교육생 17명을 모집, 7월 7일부터 남원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맞춤형 창업인력 양성 교육과 더불어 창업을 돕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31명에게 1,550만원과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308명에게 1억 5,400만원을 지급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청년혁신가 14명과 2명의 사무장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에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보조금(3백만원)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노인 건강 위한 '근육감소 예방 교육' 실시

순창군이 최근 순창읍 노인회 55명을 대상으로 쉐넨에서 노인 건강을 위한 '근육 감소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박2일에서 1일 과정으로 축소 운영됐다.

쉐넨(SHLL)은 Sustainable Health Life의 줄임말로 '순창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쉐넨의 다양한 교육은 매년 1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94.3%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은 세계적인 노화연구 권위자인

박삼철 교수의 '코로나 이후 건강 100세'라는 주제로 면역력 향상 및 폐 건강법 강의가 이뤄졌다. 또 착한발상 김영희 대표가 개발한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청국장다매를 사용하는 시간을 통해 암, 대사증후군 예방, 면역력 증진 등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메디푸드 식품을 선보였다.

아울러 낙상의 위험을 분석해 진단 해주고 계인으로 평형감각을 향상시키는 시간과, 근력 향상을 위한 근력 체조 및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관절 스프레이 만들기 시간도 가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운영 지자체로 명성

남원시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운영 지자체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과 전국 지자체 노인맞춤돌봄담당 간 영상회의에서 남원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전국 모범사례로 소개됐으며,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전담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지 간담회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인정을 받았다.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운영 지자체 사례공유'라는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남원시의 우수사례로는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과 협력(분기별 실무협의 회 개최, 전담사회복지사 자체 역량강화교육 실시) ▲수행기관장의 비전적식과 역할 수행(지역사회자원 연계에 적극 참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내실화(남원시 기존 특화사업을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총댕이마을, 서바이벌 체험장 인기

전북도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생 30명 방문 체험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23일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순창 쌍치면 총댕이마을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생 30명이 다녀갔

다고 밝혔다.

이날 총댕이마을을 방문한 교육생은 농촌관광 거점센터, 스마트사격장, 세미나실 등을 둘러봤으며, 야외에 마련된 서바이벌체험장에서 체험했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제2기 전북바로알기' 과정, 전북도내 각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문객은 총댕이마을 외에도 순창군 대표 관광지인 녹두장군 전봉준관 등도 방문했다.

총댕이마을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 육성마을로 지정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40여명 숙박이 가능한 편백과 황토로 이루어진 7동의 숙박실, 각종 회의·교육장으로 유용한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70석 규모의 식당과 야외 휴게가 가능한 데크쉼터와 커피·디저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있다. 또 뽕나무 시설이 완비된 실내사격장, 최대 42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500명 규모의 야외 서바이벌 체험장 등이 갖춰져 있어 도시민 관광객이 농촌체험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총댕이마을 인근에는 녹두장군 전봉준관을 비롯해 유학을 체험할 수 있는 훈몽재까지 갖추고 있어 초·중·고교 학생의 체험학습지라도 인프라이 잘 갖추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임실군은 23일 미세먼지로부터 군민건강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전북도와 임실군 합동으로 임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실시한 이번 점검은 터미널에 들어오는 모든 버스와 휘발유 및 경유 차량 소유자 총 85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총 6명으로 구성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반은 경유차량 시매연, 휘발유·가스 사용차량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공기과잉을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했다.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사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행정처분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제353호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

남원시는 23일 금지면 입암리에서 제353호 '나라사랑 보금자리'를 준공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무주택자의 임대주택 임주를 지원해 복지증진과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이다.

준공 행사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관과 35사단장, 전역장병지원처장,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과 유가족 및 마을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배씨는 1952년 입대해 6.25 지리산도봉 작전에 참전하였고 1957년 하사로 전역했다.

배씨의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천정 누수와 벽면 무너짐으로 골목이 발생되고 기둥이 위험한 상태였으나, 35사단 공병대대가 지난 3월 철거를 시작해 이용이 편리한 보금자리 집을 완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